

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('16년 실적) 평가등급 통보

□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(2016년도 실적) 최종 평가결과

기관명	평가등급
경북테크노파크	S

기관(TP)	기관관리	주요사업	종합성과	가·감점	총점
경북	37.73	35.76	13.34	0.7	87.53

붙임. 경북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(2016년 실적) 평가결과 총평 1부

□ 평가결과 총평

□ 기관의 비전 및 특화전략

- 비전과 발전전략이 지자체의 정책과 정합성이 높고, 구체화 되어 있으나, 각 추진전략별로 세부 실행계획이 필요하고, 부서별 성과관리 지표의 간소화와 특화지원 기능에 대한 구체적 성과 지표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연구소와 센터들의 자립화(재정, 기능) 달성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□ 기관장 리더십

- 기관 경영의 차별성을 위한 리더십 모델 연계의 경영철학, 지속가능 성장 실행 방안은 좋으나 구성원 수요반영 및 하위 사업과의 연계성과 관련 성과 제시가 미흡하고, 지역과 산업 여건 및 경북 TP 발전 단계 고려한 연도별 차별화된 경영목표 제시 필요하며,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부서 단위 자율 경영 체계 확대 및 이의 Risk 관리 방안제시 필요
- 내외부 의사소통의 핵심 가치 제시 및 연차별 단계별 목표 고객별 소통력 강화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며, 직무 및 외부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정례화를 통한 경영 환류 모델 정립 필요하고, 전년도 지적 사항 유무 및 이에 대한 개선 여부 제시 필요

□ 책임경영

- 출연비율에 따른 선출직 이사 선임이 미흡하고, 이사회 참석률 개선이 필요하며 비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 분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노사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

□ 조직, 인사관리 적정성 / 재무, 회계관리 적정성

- 근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정 절차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며, 최근 3개년 대비 이직률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이 없으며, 부서장급의 교육 시수 달성도가 저조함
- 기관 통합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, 계약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구매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. 통합 이후 예산수립 및 집행 일원화를 위해 사업부별

업무 이관 및 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으며, 규정의 정비, 오류 재발방지 대책 등 재무회계 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우수하나, 기관 통합에 따른 재무 회계 투명성 및 규정의 준수를 위한 자체 감사가 물품 감사에 국한된 점은 개선이 필요함

□ 윤리경영

-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있으며, 직원들의 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, 이러한 노력의 성과와 실적에 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등 환류체계 운영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

□ 입주공간 활용 및 관리

- 입주기업 선정과정이 체계적이며, 임대료 체납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, 지역 내 각종 창업보육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사후적으로 졸업 기업 D/B를 관리하는 부분은 적절하며,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입주 기업과 협력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나, 입주기업-비입주기업간 생존률과 수익성, 성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토대로 창업-성장-졸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

□ 장비활용 및 관리

- '16년말 기준 e-Tube(www.etube.re.kr, 산업부 장비시스템)에 등록된 공동이용장비의 수량, 활용률, 가동률, 장비수익금 등 장비 관련 지표들이 전년 대비 개선되어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,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을 실시하였고, 전주기적 통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장비통합관리지침 제정, 월별 실적 관리, 관리프로세스 구축 등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, 전년도에 통합된 연구소와 TP내 센터간 연계 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등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

□ 기업지원서비스 I (사업화)

- 기술 Roadmap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의 사업화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

으로 평가되며, 특히 R&D-생산-(수출 포함) 마케팅 등 value-chain과 Infrastructure (기술금융) 등을 연계하여 지역혁신체제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, 우수기업의 지원성과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, 투입대비 산출, 산출대비 성과, 투입대비 성과 등에 대한 체계 마련과 TP의 상대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. 우수사례 선정에 대한 process와 평가표가 없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

□ 기업지원서비스 II (기술지원)

- 기술지원에 대한 지역산업 수요조사와 전년도 기업지원에 대한 성과조사를 사업별로 수행하고 있으며, 지원유형별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의 기여효과에 따라 start up에서 scale up으로 기술지원 구조를 변경하여 설정한 것은 적정하며, KOLAS를 비롯한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을 확대 추진하는 등 내부인프라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지원기업수를 비롯한 전년도 대비 기술지원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수혜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증대 효과가 높으나, 2개의 기술연구소 통합과 대형국책사업비 조성에 따른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방향설정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

□ 정책부합도

- 북부권 거점기능 강화와 경북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고, 주요성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종합기업지원시스템 운영실적이 향상된 결과로 제시되었으나 사업항목별로 대표 실적 제시가 필요